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

Citizen-Friendly Architecture

이순희 / 안산1대학 건축설계과 교수

by Lee Soon-Hee

9월 17일 개막한 경기시민건축대학에 한 강좌를 맡게 되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경기도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서울시민도 있었고 심지어는 전남 순천에서 까지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과 나눈 다양한 대화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다소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소리를 공유하고 싶어 몇 자 적어본다.

시민건축대학에는 목사, 조각가, 작가, 기자, 백화점 관리인, 제조업체 사장, 아파트 관리소장, 어린이집 원장, 부동산업 종사자, 주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다. 건축은 모든 이에게 관심거리이며,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직접 접하고 살아가는 문화이다. 하지만, 라면을 끓여먹듯이, 양품점에서 기성복을 사서 입듯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건축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참여자 중에서 한 주부는 건축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남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퇴근하여 돌아온 남편이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건축적으로 아내와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적극 추천해 주었다고 했다. "접수해주면서 남편이 저에게 주문하기를 열심히 배우고 주시포가 뭔지 다포가 뭔지도 꼭 물어서 알아오라고 했어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의식주가 우리에게 밀접한 것이면서도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련된 어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퓨전 음식적이다, 패션쇼다 해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이 있지만, 건축은 어디 그러한가? 우선 우리가 만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축의 이미지는 매우 딱딱하고 전문가의 일로만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순수한 우리의 전통건축에 사용되어온 부재나 관련된 간단한 어휘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보면, 건축을 전공하고 일선에 있는 우리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반 시민들이 건축을 좀 더 가까이 생각하고 제대로 안다면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설계비를 터무니없이 깎자고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 스케치한 계획도면을 단순한 서비스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일도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여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차치하고라도 언제 누구라도 건축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끈임 없는 교육과 건축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이 해결되어지지 않겠는가?

한편, 이번 시민건축대학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1년 혹은 2년 후에, 내 집을 직접 지어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이다 보니 스스로가 담당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여러 각도에서 전문가들이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질문이 이어졌다.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시작하였으나 멀리는 순천에서부터 서울시민에 이르기까지 각처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기회가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일반시민이 건축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함께 느껴보는 시민대학'이란 주제 아래 약 1개월 동안 1주에 2강좌씩 총 8강좌로 계획되었다. 그 중에 건축사분들이 5강좌를 맡았고, 교수가 3강좌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강좌의 내용은 주제에 걸맞도록 쉽게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나갔다. 소개하자면, '신나는 건축이야기', '건축은 이렇게', '주거건축의 발달', '아파트의 현주소', '생활건축', '풍수와 건축', '수원화성의 보전과 회복', '건축여행'이란 테마로 비교적 가볍게 기획하였다.

예상한대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생활 속에 어우러지는 건축적 상황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주택지 선정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좋은 건축가 선정, 설계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

또한, 건축가협회 경기지회에서는 시민대학 종강하는 날에 맞추어 건축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직접 보여주고 설명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설명 들던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번 행사를 통해 건축공간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건축에 다가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수 있다면, 대중이 갖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건축의 언어, 생활 속에서 꼭 담고 싶어 하는 공간의 의미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건설회사에서 분양되어온 아파트가 마치 기성복과 같은 경우라면 기성복집이 아닌 맞춤복집으로, 이제는 주문자, 즉 살 사람의 개성에 맞추어 맞춤식의 건축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산업사회의 경

제논리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 건축문화의 후퇴를 가져왔으며, 획일적인 건축물로 인해 사용자의 개성과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맞는 공간의 창출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거주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 중심의 건축공간을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 뿐 만 아니라 모두가 좀더 건축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의 건축수준의 눈높이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참여하는 건축으로 함께 할 때 보다 기능적이고 발전된 우리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경기도에 국한된 아쉬움은 있지만,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건축문화로써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사는 계속되어야 하며 큰 의의를 갖는다.

전에 읽었던 한 건축소설에 등장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 '설계학 교수께 굴뚝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네. 당시 나는 중정식으로 된 연립주택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었지. 나는 그 지붕의 굴뚝에 특별한 시각적 기능을 주고 싶었네. 그 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나? "야! 연기나게 그리면 돼."였네 배움의 기쁨에 흥분해 있던 내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지.' 굴뚝은 연기나게 그리면 된다는 소설 속 교수님의 대답이 황당하게 들리지 몰라도 그 말속에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건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건축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 여겨진다.

건축에 대한 감상은 다분히 개인적이다. 그것은 제각기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축언어에 대한 이해도 개인에 따라 물론 다를 수 있다. 이 의미는 곧 기본적인 것을 말하며, 그 이상은 건축가의 몫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축물로 형성되어지는 도시는 시민의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건축가들의 꿈은 개인적인 것이기 보다는 대중을 위한 것이 더 값진 것이 아니겠는가? ■